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참석자들이 24일 경기 안산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



상주 풍물시장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사진=임자원의원실 제공

이재명·김문수, 지지층 결집 총력전... 李 “내란세력 확실히 제압” 金 “차탄핵 가슴 아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6·3 대선 본 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지지층 총결집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정치 고향’인 경기 일대를 돌며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고, 김 후보는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표심 단속에 나섰다.

◆이재명 “지지층 끌어들이고 있다” 결집 호소...尹엔 “우리와 다른 종족”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지지를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지지층 위기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시흥시 유세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짝 신경쓰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시 불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여세를 몰아 6월 3일에는 내란 세력과 내란 주종 세력, 내란 후계자들까지 확실하게 제압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당대표 시절 성과를 강조하며 ‘유능한 리더십’ 면모도 부각했다.

그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며 “계파를 펴져 이렇게 저렇게 싸

6·3 대선 본투표 열흘 앞으로... 지지층 결집에 사활
李 ‘정치 고향’ 경기도 순회... 金 ‘텃밭’ TK 표심 단속

우던 당이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당원을 존중하고 당원과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 정당, 동시에 유능하고 이기는 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야당이던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경기 안산 유세에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큰 사고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자 한 명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 일각서 부정선거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우리와 다른 종족”, “비정당”이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부천 유세에서 “자주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부정선거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가 이기냐”며 “부정선거하려면 화끈하게 0.7%포인트로 지게 하지 말고 7%포인트쯤 이기게 하지 왜 지게 만들어서 3년 동안 온 국민을 고생시키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뭔가 나뉘는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와는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종족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정상 아닌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안양 유세장에선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도 “내란·외환의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며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면서 희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보수 텃밭’ TK서 “깨끗한 대통령 되겠다”...지지층 결집 호소

김문수 후보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 TK 지역을 순회하며 보수층 결집에 총력전을 폈다.

김 후보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참배한 뒤 열린 집중 유세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뜻밖에 물러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집도 다 뺏기고 탈성에 계시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한동안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요즘 말씀이 없다. 그러나 왜 할 말씀이 없겠나. 정말 많은 할 말을 가지고도 은근하고 계시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대한민국이 이

렇게 오늘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희에게 너무나너무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셨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산업 혁명가였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가난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킨 분은 전 세계 역사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저희가 앞으로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큰절을 하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호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 세계 최고의 산업 혁명가’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안동과 상주, 김천 등을 훑으며 텃밭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세’와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그는 영주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절대로 독재국가가 되면 안 된다”며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대통령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부정·비리를 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특검하겠다는 이런 무지막직한 방탄 독재 막아내야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방탄 유세’를 지적하면서 연설 도중 자신의 겹옷 단추를 풀기도 했다. 안쪽에 받쳐 입은 티셔츠에는

‘국민의 방패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저는 방탄조끼가 없다. (이 후보는) 방탄조끼도 모자라서 방탄유리를 앞에 쳐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연설을 한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비슷한 논란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제 측근 중에 부정부패 비리로 자살하거나 의사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북 안동 웅부공원에서 진행된 유세에서는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채 연설을 하기도 했다.

/뉴스

‘고용·협력사 위기’ 금호타이어 피해최소화... 대책반 가동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완전 복구가 최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오염, 근로자 해고, 협력업체 줄도산, 지역경제 위축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대책반(TF)을 가동한다.

시는 금호타이어 측이 합평 빗그리 국가산업단지외 공장이전을 공식화 하고 토지매입 대금 완납, 신공장 착공 등의 절차를 선행할 경우 현 광산구 공장 부지 용도변경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까지 9일째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235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 불안에 호소하고 있다. 협력업체 213곳은 납품대금 지급이 늦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화재로 발생한 검은연기가 광주 전역을 뒤덮으면서 대기오염을 비롯해 공장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2차 피해가 현실화 됐다.

시는 복구 장기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화재 대책반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 2350여명 생계유지비 지원·피해 주민 보상
협력업체 213곳 납품대금 미뤄지면 경영안정자금
공장 합평이전 지원... 대금완납·공장착공 선행조건

대책반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광주 공장 인근 주민 보상을 위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고부가 타면서 발생한 분진과 연기 흡입으로 인한 목·눈 따가움, 어지러움을 호소한 피해는 2713건으로 나타났다. 차량 분진 피해를 입은 주민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보합사에 접수할 계획이다.

주민 피해 접수처는 광주 광산구 송정보건지소 1층에 마련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해고’ 등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235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이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노사협의회를 가동해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에 특별교부세·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 선포를 지속해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

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 광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과 인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재난·위기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측이 납부해야 하는 의료·고용보험 등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 지역 복구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최소생계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금호타이어가 화재로 인해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미룰 수 있어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는 총 213개다. 이 중 타이어 제조 등 금형을 납품하는 직접 협력업체는 3곳으로 지난해 8억원 가량 납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2면에 계속) /박도일 기자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백성포만포지

2025.5.29.목 ~ 6.1.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 KH 영광군수리공비농협